

장애노인 고용특성 및 취업 영향요인 -1인가구와 다인가구 비교

박주영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조교수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and Factors Affecting on the Employment of Elderly with Disabilities -A Comparison of On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s

Ju-Young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Jeon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장애노인 고용특성을 살펴보고 취업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차웨이브 1차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상 장애노인은 452명이다. 통계분석은 기술통계, 카이스퀘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장애노인 취업집단은 미취업집단에 비해 경증장애,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자격증이 있는 경우, 공공취업서비스 경험이 없는 경우, 유배우자인 경우, 비수급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둘째, 장애노인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은 공공취업서비스 경험($p<.01$), 가구소득($p<.01$)이고, 다인가구 장애노인 취업 영향요인은 장애수용($p<.05$), 1인가구 장애노인 취업 영향요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p<.05$)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노인의 취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장애노인, 고용특성, 취업 영향요인, 1인가구, 다인가구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and factors affecting on employment of elderly with disabilities. Data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s, regression analyses according to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in Korea. Participants were 452 elderly with disabilities. First, The employment group showed significantly mild disorder, higher health status, absent of chronic disorder, licenses, absent of public employment service, married, absent of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 higher level of household income compared to the unemployed group. Second,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of elderly with disabilities included public employment service, level of household income. And multi-person factors were acceptance of disabilities and one-person factors were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 Base on these results, suggested for obtaining job of elderly with disabilities.

Key Words : Elderly with Disabilities,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nt, One-Person Households, Multi-Person Households

*Corresponding Author : Ju-Young Park(tuwollip@jj.ac.kr)

Received April 24, 2019
Accepted July 20, 2019

Revised May 25, 2019
Published July 28, 2019

1. 서론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명에서 2025년 1,000만명을 넘기며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갈 전망이다[1]. 2000년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7년 14%를 넘기며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는데, 2025년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2]. 장애인집단은 더욱 빨리 고령사회가 되었는데 70세 이상 장애노인이 35.2%로 가장 많고, 60대는 21.8%이며, 50대(19.9%), 40대(10.4%), 30대(4.8%), 20대(4.0%), 10대(2.7%), 10세 이하(1.1%)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3]. 이렇게 60세 이상 장애노인이 57%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중고령 장애인은 장애와 노화로 인한 이중위험을 경험하는 인구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4].

한편,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37.0%, 고용률 34.5%, 실업률 6.6%로 전체인구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은 26.9%p, 고용률은 26.8%p 낮고 실업률은 2.6%p 높게 나타난다. 60세 이상을 살펴보면, 장애노인 경제활동참가율은 24.5%, 고용률 22.9%, 실업률 6.5%로 60세 이상 전체인구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은 18.2%p, 고용률은 18.8%p 낮고 실업률은 4.1%p 높게 나타난다[5, 6]. 결과적으로, 장애노인은 전체인구 대비, 전체 노인인구 대비 고용관련 지표들이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장애노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아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소득 역시 감소하게 되고[7], 장애집단 내에서도 고용률은 60대 이상(22.9%)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5].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2000년대 초 민간과 정부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하여 단 시간에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및 확보에서 상당 수준 가시적인 양적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8, 9]. 이런 노력으로 장애인 고용정책과 주요 사업에서 중증장애, 여성장애와 취업이 어려운 특정장애유형인 발달장애, 시각장애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노인을 위한 특별한 정책과 지원은 없고, 노인일자리에서도 장애가 없는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노인은 장애인고용정책, 노인고용정책의 주요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또한, 임금근로 장애인구의 비정규직 비율은 59.4%이나 장애노인은 84.7%로 높게 나타나 고용

불안정이나 임시, 일용직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5]. 장애노인은 실업상태가 지속된 이유로 구직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1순위로 들고 있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취업을 위한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1인가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8.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이는 미혼세대 증가, 기대수명의 연장 등을 이유로 하는 고령화가구의 증가를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10]. 장애인 1인가구도 26.4%로 전체인구 1인가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다[2]. 이중 고령화로 인한 장애노인 1인가구는 건강관리의 어려움, 일상생활의 어려움, 경제활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건강문제, 안전문제, 경제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생존권과 삶의 질과 관련되어 질 수 있다.

이렇게 장애노인 인구의 증가, 낮은 고용률, 낮은 고용의 질, 적합한 고용정책 부재, 1인가구 증가를 고려했을 때, 장애노인은 취업이 가장 어려운 집단으로 볼 수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영향요인 연구가 필요하다. 빠르게 추진되는 장애인 고령화추세와 더불어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빈곤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장애노인의 경제적 현실을 타계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11]. 지금까지 장애노인 연구는 의료 및 건강, 노후, 삶의 만족도, 일상생활수행, 사회생활 참여 등의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고, 장애노인의 취업 관련 연구도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취업 영향요인과 관련해서는 그 수가 적다[12]. 본 연구는 사회적 변화와 고령으로 인한 장애노인 1인 가구의 등장과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취업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노인 취업자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노인은 취업여부에 따라 집단 특성 차이가 있는가? 셋째, 장애노인 가구유형에 따라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분석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한 장애인 고용패널 2차 웨이브 1차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장애인 고용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패널조사로 장애인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애 정보, 경제활동, 일상생활, 여성·고령자, 개인소득, 가구정

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과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전체 응답자는 4,577명이며 장애노인 452명으로 취업자 187명, 미취업자 265명이다.

2.2 측정변수

종속변수는 취업여부로 취업은 1, 미취업은 0이다. 독립변수는 장애건강 요인, 인적자본 요인, 가구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장애건강 요인은 장애정도, 전반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장애수용을 변수로 정하였다. 인적자본 요인은 학력, 자격증, 공공 취업서비스 경험을 변수로 정하였다. 가구관련 요인은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소득을 변수로 정하였다. 변수 측정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Variables

Variables		Measurement	
Dependent variables	Employment Status	Employed=1, Unemployed=0	
Independent variables	Disability, Health variables	Severity of disability	Severe=1, Mild=0
		Health status	Very bad=1 Bad=2, Good=3 Very good=4
		Chronic illness	Yes=1, No=0
		Acceptance of disabilities	Very poor=1, Poor=2, Usually=3 Good=4 Very good=5
	Human capital variables	Education level	No education=1, Elementary School Graduate=2, Middle School Graduate=3, High School Graduate =4, Above College=5
		Licenses	Yes=1, No=0
		Public employment service	Yes=1, No=0
	Household related variables	Marital status	Married=1 Non-married=0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	Yes=1, No=0
		Household income level	Continuous Variables

2.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장애노인 중 취업자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취업집단과 미취업집단 차이 분석은 카이스퀘어 검증을 하였다. 또한, 장애노인 취업 영향요인 분석은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4를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고용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Category		N	%
Status of work	Regular employee	51	46.0
	Temporary employee	27	24.3
	Daily employee	33	29.7
	Total	111	100.0
Type of job	Administrator	5	4.6
	Specialist, related worker	4	3.6
	Office worker	3	2.7
	Service worker	9	8.2
	Sales worker	3	2.7
	Function, related worker	12	10.9
	Equipment, machine operation, assembly worker	12	10.9
	Simple labour	62	56.4
Total	110	100.0	
Type of company	private company	81	73.0
	Government, Public sector	8	7.2
	Welfare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4	3.6
	Not belong	17	15.3
	Not specific	1	0.9
Total	111	100.0	
Size of company	Below 50 person	20	58.8
	50-99 person	2	5.9
	100-199 person	6	17.6
	Above 200 person	6	17.6
Total	34	100.0	
Time of work	Full time job	87	78.4
	Part time Job	24	21.6
	Total	111	100.0
Job retention	Below 1 year	18	16.7
	1-3 years	27	25.0
	3-10 years	29	26.9
	Above 10 years	34	31.4
	Total	108	100.0
Average monthly Income level ^a	Below 50	5	4.6
	50-100	27	24.5
	100-200	63	57.3
	200-300	11	10.0
	Above 300	4	3.6
	Total	110	100.0

Note. ^aThe unit is South Korean 10,000won(USD 1 = KRW 1,126.50).

장애노인 중 취업자 고용특성은 Table 2와 같다. 중

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46.0%로 가장 많았고 일용근로자(29.7%), 임시근로자(24.3%)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유형은 단순노무종사자가 56.4%로 가장 많았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0.9%),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10.9%), 서비스종사자(8.2%), 관리자(4.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6%), 사무종사자(2.7%), 판매종사자(2.7%)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유형은 민간회사(개인회사)가 73.0%로 가장 많았고 특정한 회사/사업체 미소속(15.3%), 정부 및 공공기관(7.2%), 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3.6%), 기타(0.9%)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는 50인 미만이 58.8%로 가장 많았고, 50~99인 미만과 100~199인 미만은 각 17.6%, 50-99인 미만은 5.9%로 나타났으나 응답자 수가 적어 대표성을 담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근무시간은 전일제가 78.4%로 시간제(21.6%)보다 많이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10년 이상이 31.4%로 가장 많았고, 3년-10년 미만(26.9%), 1년-3년 미만(25.0%), 1년미만(16.7%)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은 100~200만원이 57.3%로 가장 많았고 50~100만원(24.5%), 200~300만원 미만(10.0%), 50만원 미만(4.6%), 300만원 이상(3.6%)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인 장애인 중 취업자는 상용근로자, 단순노무종사자, 민간회사, 50인 미만 사업장, 전일제 근무, 근무기간 10년 이상, 100~200만원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취업여부에 따른 집단차이

취업여부에 따른 장애인 집단차이는 Table 3과 같다. 장애건강 요인의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집단이 미취업집단에 비해 경증장애($\chi^2=20.444$, $p<.001$), 전반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chi^2=50.922$, $p<.001$),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chi^2=4.951$, $p<.05$), 장애수용이 높은 경우($\chi^2=26.805$, $p<.001$)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적자본 요인에서 자격증, 공공취업서비스 경험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집단이 미취업집단에 비해 유자격증($\chi^2=14.772$, $p<.001$), 공공 취업서비스 경험이 없는 경우($\chi^2=5.958$, $p<.05$)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공 취업서비스 경험은 미취업집단 응답비율이 낮아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구관련 요인은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집단이 미취업집단에 비해 유배우자($\chi^2=29.231$, $p<.001$), 기초생활보장 비수급($\chi^2=61.259$, $p<.001$), 가구소득이 높은 영역에 분포된 경우

($\chi^2=75.189$, $p<.001$)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장애인 취업집단은 미취업집단에 비해 경증장애,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장애수용이 높은 경우, 유자격증, 공공 취업서비스 경험이 없는 경우, 유배우자,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의 분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different of Variables according to Employment

Variables	Category	Yes	No
Severity of disability	Severe	19(10.2)	73(27.5)
	Mild	168(89.8)	192(72.5)
	$\chi^2=20.444$, $p=000^{***}$		
Health status	Very poor	12(6.4)	57(21.5)
	Poor	81(43.3)	151(57.0)
	Good+Very good	94(50.3)	57(21.5)
$\chi^2=50.922$, $p=000^{***}$			
Chronic illness	Yes	86(46.0)	150(56.6)
	No	101(54.0)	115(43.4)
$\chi^2=4.951$, $p=026^*$			
Acceptance of disabilities	Very poor+Poor	7(3.9)	36(13.7)
	Usually	121(66.9)	193(73.7)
	Good+Very good	53(29.3)	33(12.6)
$\chi^2=26.805$, $p=000^{***}$			
Education level	No schooling	22(11.8)	44(16.6)
	Elementary school graduate	42(22.5)	71(26.8)
	Middle school graduate	54(28.9)	66(24.9)
	High school graduate	53(28.3)	71(26.8)
	Above College	16(8.6)	13(4.9)
$\chi^2=7.093$, $p=.214$			
Licenses	Yes	46(24.6)	29(10.9)
	No	141(75.4)	236(89.1)
$\chi^2=14.772$, $p=000^{***}$			
Public employment service	Yes	16(8.6)	7(23.3)
	No	171(91.4)	23(76.7)
$\chi^2=5.958$, $p=015^*$			
Marital status	Married	149(79.7)	146(55.1)
	Non-married	38(20.3)	119(44.9)
$\chi^2=29.231$, $p=000^{***}$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	Yes	6(3.2)	90(34.0)
	No	179(96.8)	175(66.0)
$\chi^2=61.259$, $p=000^{***}$			
Household Income level ⁹	Below 50	18(9.6)	101(38.1)
	50-99	22(11.8)	61(23.0)
	100-199	57(30.5)	50(18.9)
	200-299	44(23.5)	24(9.1)
	Above 300	46(24.6)	29(10.9)
$\chi^2=75.189$, $p=000^{***}$			

*** $p < .001$, * $p < .05$

Note. ⁹The unit is South Korean 10,000won(USD 1 = KRW 1,126.50).

3.3 취업 영향요인

장애노인 취업 영향요인은 Table 4와 같다. 다인가구 장애노인 취업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X^2=31.415$, $p<.001$),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29.9%이다. 전체 변수 중 장애수용($B=1.126$, $p<.05$), 공공취업서비스 경험($B=-2.026$, $p<.01$), 가구소득($B=.584$, $p<.01$)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하게 나온 독립변수의 승산비(Odds ratio)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장애수용이 한 단계 높아질수록 취업할 승산이 3.08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취업서비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취업할 승산이 .132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한 단계 높을수록 취업할 승산이 1.79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장애노인 취업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X^2=32.091$, $p<.001$),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25.3%이다. 전체 변수 중 공공취업서비스 경험($B=-1.804$, $p<.01$), 기초생활보장수급($B=-1.865$, $p<.05$), 가구소득($B=.526$, $p<.01$)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하게 나온 독립변수의 승산비(Odds ratio)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공공취업서비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취업할 승산이 .16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취업할 확률이 .15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한 단계 높을수록 취업할 승산이 1.69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다인가구 장애노인과 1인가구 장애노인 모두 공공취업서비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취업할 승산이 낮고, 가구소득이 높은 사람이 취업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인가구는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취업할 승산이 높게 나타났고, 1인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취업할 승산이 낮게 나타났다.

Table 4. Variables Affecting Employment, Type of Households

Variables	Multi-person households(N=326)			
	B	S.E	OR	p
Severity of disability	.998	1.128	2.713	.376
Health status	.314	.396	1.369	.428
Chronic illness	.595	.573	1.812	.299
Acceptance of disabilities	1.126*	.536	3.084	.036
Education level	.910	.553	2.484	.100
Licenses	-.350	.581	.705	.548

Public employment service	-2.026**	.737	.132	.006
Marital status	.441	.933	1.555	.636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	-1.447	1.417	.235	.307
Household income level	.584**	.203	1.792	.004
(constant)	-5.731	2.266	.003	.011
Model X^2	31.415***			
-2 LogLikelihood	108.199			
Nagelkerke R^2	.299			
Variables	One-person households(N=126)			
	B	S.E	OR	p
Disability level	.157	.720	1.170	.827
Health status	.106	.358	1.112	.767
Chronic illness	.771	.505	2.162	.127
Acceptance of disabilities	.939	.483	2.557	.052
Education level	.7852	.456	2.122	.099
Licenses	-.036	.523	.965	.945
Public employment service	-1.804**	.625	.165	.004
Marital status	-.682	.655	.505	.298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	-1.865*	.907	.155	.040
Household income level	.526**	.186	1.692	.005
(constant)	-3.311	1.843	.036	.042
Model X^2	32.091***			
-2 LogLikelihood	140.158			
Nagelkerke R^2	.253			

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본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 중 취업 장애노인 특성은 상용근로자, 단순노무종사자, 민간회사, 50인 미만 사업장, 전일제 근무, 근속기간 10년 이상, 100~200만원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둘째, 장애노인 취업집단은 미취업집단에 비해 경증장애,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장애수용이 높은 경우, 자격증이 있는 경우, 공공취업서비스 경험이 없는 경우, 유배우자, 기초생활보장비수급,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로 나타났다. 셋째, 다인가구 장애노인 취업 영향요인 분석 결과, 장애수용, 공공취업서비스 경험, 가구소득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수용이 한 단계 높아질수록 취업할 승산이 3.084배 높고, 공공취업서비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취업할 승산이 .132배 낮았으며, 가구소득이 한 단계 높을수록 취업할 승산이 1.79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1인가구 장애노인 취업 영향요인 분석결과, 공공취업서비스 경험,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소

득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취업서비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취업할 승산이 .165배 낮고,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비수급권자에 비해 취업할 확률이 .155배 낮으며, 가구소득이 한 단계 높을수록 취업할 승산이 1.69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공공취업서비스 경험결과는 고용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장애노인이 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2]와 중고령장애인이 고용서비스경험을 하지 않을수록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3]와 동일하였다. 가구소득 결과는 장애노인의 가구자산이 높아질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14]와 50세 이상 장애인 집단에서 가구자산이 증가할수록 취업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5]와 동일하였다. 1인가구 장애노인에게 나타난 기초생활보장수급권 결과는 비수급자 장애노인이 수급자보다 취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2]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않는 중고령장애인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3]와 동일하였다. 결과적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고용서비스, 가구소득, 기초생활수급여부는 장애노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장애수용은 선행연구에 없는 결과가 나타나 본 연구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4.2 제언

결론을 바탕으로 장애노인 취업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노인 취업을 위해 적합한 공공취업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장애노인은 공공취업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유형으로 취업이 어려운 대상일 수 있거나 장애노인이 쉽게 공공취업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장애노인이 집 근처 공공취업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제공과 찾아가는 취업상담과 알선서비스의 제공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집단은 청년, 중년집단과 달리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취업정보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접근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15, 16]. 따라서, 장애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접근이 용이한 지역 주민센터를 활용하거나 지역특성에 따라 산간지역, 농어촌지역인 경우 가정 방문서비스 등을 통한 취업정보안내와 취업서비스 연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노인이 근로외소득

이 낮은 경우 적극적인 취업지원이 필요하다. 근로외소득이 적을수록 취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각종 사회급여와도 관련성이 있다. 근로외소득이 낮아 근로를 통한 소득을 높이고 이는 전체 가구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1, 13]. 장애노인 가구의 근로외소득이 낮은 경우 장애노인이 가구 주소득원으로써 활동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셋째, 다인가구 장애노인 취업을 위해 긍정적인 장애수용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노인은 장기간 자신에 대한 장애를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는 심리적 요인으로 이미 고착화된 장애가 있으나 장애가 취업 활동에 주요 요인이 아니고, 자신의 욕구나 의지, 직업능력이 취업활동에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1인가구 장애노인 취업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근로소득발생으로 인한 수급권 탈락, 삭감이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1인가구 장애노인은 스스로 건강을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수급 탈락이 건강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노인의 근로소득은 의료권 보장, 수급권 보존으로 이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제한적인 변수 선정과 전체 장애노인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16].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애집단 중 가장 낮은 고용률의 장애노인의 취업 영향요인을 살펴봤다는 점과 다인가구와 1인가구를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9). *Assumptions for the Future Population*. Daejeon : Statistics Korea.
- [2]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8). *2018 Employment Index*. Seoul : Press release.
- [3] S. H. Kim et al. (2017). *2017 National Survey on Person with Disabilities*. Seoul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4] P. Foreman. (1998). Aging & Disability : Double Jeopardy?.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23, 1-2.
- [5] H. W. Park, Y. G. Lim, G. Y. Lee, G. J. Jung & E. A. Kim. (2018). *2018 Survey on the Current Conditions of Economic Activ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eungnam :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 [6] Statistics Korea. (2018). 2018 *Survey of Economic Activities of Population in Korea*. Daejeon : Statistics Korea.
- [7] R. Pagan. (2009). Part-Time Work among Older Workers with Disabilities in Europe. *Public Health*, 123, 378-383.
- [8] J. J. Ru. (2010). *Cause and Solution of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Rate and Employment Rate of Women with Disabilities Lower than Men with Disabilities*. Seungnam :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 [9] H. W. Shin. (2015). Analyzing Vocational Outcomes of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s : A Data Mining Approac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1), 449-459.
- [10] Statistics Korea. (2017).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Daejeon : Statistics Korea.
- [11] J. H. Nam. (2017). Factors Affecting on The Employment Maintenance Possibilities of The Aged People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27(3), 33-56.
- [12] S. Y. Lee, C. K. Song, S. Y. Oh, H. G. Kim & S. J. Park. (2015). A Study on the Effects of Labor Market Entry for the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5(2), 107-127.
- [13] C. S. Lee & M. S. Kim. (2013, November). The Employment Determinants through Comparison of Al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Employed and the Unemployed among Middle and Old Aged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5th PSED Conference*. (pp. 169-200). Seungnam :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 [14] S. H. Roh. (2012). The Longitudinal Study on the Factors of the Employment and Employment Types among Disabled Elderly. *Disability & Employment*, 22(3), 51-82.
- [15] S. W. Kim & J. Y. Mon. (2010, November).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Labor Market Entry and Employment Duration for the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The 2th PSED Conference*. (pp. 167-194). Seungnam :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 [16] M. H. Lee. (2018). Effect of Wellness Components on the Quality of Life and Subjective Happiness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8), 361-371.

박 주 영(Ju-Young Park)

[정회원]



- 201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2006년 7월 ~ 2015년 2월 : 한국장애인개발원
- 2015년 3월 ~ 현재 :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재활상담, 직업재활, 장애인

복지

E-Mail : tuwollip@jj.ac.kr